

4/8(금) 왕상 12-14장 평가기준 : 그들이 나를 버리고

“그들이 나를 버리고(11:33)”

열왕기서의 핵심은 <하나님과 왕의 관계>입니다.

솔로몬에 대한 평가는(11장) 열왕기서 전체 이야기의 패턴을 제시합니다.

❶ 모든 왕들은 <하나님 신앙>으로 평가됩니다(11:33).

군사적 능력과 치세는 열왕기의 관심과 기준이 아닙니다(14:19 참고).

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산당/우상 타파 등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는가,

군사력이나 외세를 더 의지하며 산당/우상들을 그대로 두었는가를 봅니다.

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바와 그가 벼림받은 이유 모두 이에 근거합니다.

(12:25-33, 13:2, 33-34, 14:9, 16)

❷ 선지자들의 등장과 역할이 부각됩니다(11:29).

하나님은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선지자를 쓰십니다(삼상10:5, 10-12).

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<그대로>를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(12:22, 13:2, 11, 14:2).

선지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은 <하나님>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.

그들은 메신저일 뿐, 선지자도 <하나님>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(13:17-18).

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.

❸ 하나님은 국제정세 전체를 주관하시는 <만국의 왕>이십니다(11:14, 23).

하나님은 불순종한 왕과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.

앗수르, 바벨론 등 강대국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.

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곳곳을 아우릅니다.

현실 정치와 세속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.

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고,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(12:16-17).

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처럼 선택받았으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(11:27, 삼상15:24 참고).

산당과 우상을 세우는 왕의 모습은 북 왕국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줍니다(11:37-38, 14:7-11).

이후 왕들의 성품과 영성, 주변 정세와 사건들 대부분도 절망적입니다.

결국 이스라엘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뿐입니다(11:36, 15:4, 원하8:19).

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중시합니까?

실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?